

<p>믿음 지혜 ... ..</p>	<h1>BUDDHANARA</h1> <p>부다나라 (불국사)</p>	<p><b>FAITH WISDOM ACTION</b></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を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신묘년 정초기도, 입춘기도 회향 및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법회, 교리탐구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시-오후 1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부다나라(불국사) 후원회 -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Every Tuesday 6:30 pm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Intensive Meditation: Feb. 22. (Tuesday) 7:00 PM – 10:00 PM

**이달의 법구경**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매한 생각  
 심오한 선정에 드는 사람,  
 열반에 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네.  
 이런 사람  
 최상의 평화, 무한한 기쁨 맛보리.

And those who in high thought and in deep  
 contemplation with ever-living power  
 advance on the path, they in the end reach  
 NIRVANA, the peace supreme and infinite  
 joy.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1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불교가 명실상부한 국민종교로 거듭나자

### - 이슈분석/자성과 쇄신위한 5 대 결사

조계종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선언했다. 한국불교의 변화를 이끌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원력이 담겨 있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크게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등 5 대 결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5 대 결사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 수행결사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5 대 결사 가운데 첫 번째인 수행결사는 불교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뜻을 내포한다. 여기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부처님 법에 따라 살면서 승가의 위의를 높임으로써 불자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종단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한국불교에서 ‘결사’는 자성과 쇄신은 물론 실천까지 상징한다. 대표적인 예가 고려 정혜결사와 봉암사결사다. 정혜결사는 귀족화 되고 세속화 한 고려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했다.

결사를 주도한 지눌스님은 정치적 혼란이나 선교(禪敎)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으로 불교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다. 전 조계종 종정 성철스님 등을 중심으로 한 봉암사결사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왜색화 된 한국불교를 바로 잡기 위한 운동이었다.

스님들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 아래 청규(공주규약)에 따라 살면서 청정한 수행가풍을 되살렸다. 두 결사 모두 수행을 통해 정법을 구현해 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종단이 내세우는 자성과 쇄신 또한 수행이라는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법실현해 승가 위의 제고

#### 불자와 국민들의 신뢰 회복

종단 수행결사에는 △본사별 결계 포살 시행 △승가복지 시행을 통한 수행기반 구축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계에 비추어 스스로의 죄를 참회하는 결계포살은 출가수행의 기본 덕목 가운데 하나로, 교단 초기에도 시행돼 왔다.

조계종은 지난 2008 년 결계포살제도를 되살렸다. 올해로 4 년 째를 맞는 결계포살제도는 스님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승풍을 진작시키는데 일조했다.

최근에는 결계포살에 보다 많은 스님들의 참여하도록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에는 그간 교구본사가 하안거 동안거 결계 기간 중에 월 1 회 포살을 개최해왔던 것을 1 회 이상으로 확대해 포살에 참여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해 추가로 포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님들은 결계기간 중 1 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특히 교구본사 관할 공찰 주지 스님은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승가복지 시행 역시 수행승단의 면모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편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불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게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이에 조계종은 승가복지법 제정을 통해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자본주의로 인해 퇴색된 승단의 공동체정신을 복원하고 노스님들에게 안정적인 수행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종단의 목표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주최하는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역시 한국불교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쇄신하는 자리이다. 대토론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불교가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종교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찾아보려는 종단의 노력이다.

다루는 주제도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 ‘생명과 생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망에 대한 불교의 응답’ 등 다양하다. 승진위는 오는 12 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대토론회를 열고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대승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 문 화 결 사

문화결사는 ‘민족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불교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조계종은 문화결사를 통해 불교계 내부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문화재 인식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조계종이 전개하고 있는 민족문화수호 운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편협하고 잘못된 문화재 인식과 정책에서부터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조계종이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문화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천명하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700년간 불교계가 지켜 온 문화유산은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이자 불교적 가치와 사상이 담겨 있는 신앙의 대상이자 성보(聖寶)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인식없이 문화재를 ‘불교계’에 한정된 종교문화재로만 인식해왔으며,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마땅히 국가에서 보조해야 하는 문화재 보수 예산 등을 불교계 특혜를 주는 것처럼 지원해왔다.

이에 앞으로 문화결사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찰 관련 규제나 문화재 유지, 보전 등 문화재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 편협한 정부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교문화재 훼손 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향후 민족문화수호위원회의 활동이나 33대 총무원 집행부의 주요과제인 불교규제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 사업도 이 같은 흐름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 민족문화, 정부의존 탈피해

#### 스스로 보호관리...역량 강화

문화결사의 한 축이 정부의 문화재 인식 변화라면, 다른 한 축은 ‘자성과 쇄신’을 통한 불교 내부의 변화다. 문제의 원인을 불교계 내부에서 찾고 불교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 의존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내부의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비판 없이 정부의 문화재 보존 정책을 수용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지원에 의존해 왔다.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총무원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재 보수비 등의 보조금 수령을 보류한 점이나 제 2교구본사 용주사와 제 25교구본사 봉선사가 경기도의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사업비의 수령을 보류한 점도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불교의 힘으로 민족문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의 변화를 위해 앞으로 불교계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반성하고 불교계 스스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체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교육 체계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환수나 전통문화 전승사업 등도 모색하고 있다.

### 생명결사

불교 교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명존중’이다. 모든 존재의 존엄성과 가치는 동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그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담화를 통해 발표한 5대 결사에 포함된 생명결사는 이 같은 불교정신에서 출발하고 있다.

종단은 ‘생명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생명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생명살림 방식,

순례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존중 의식 확대 △생명살림을 위한 청구 제정 및 시행을 제시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담화문에서 밝힌 “자비로서 보살의 정신을 구현하는 대승불교가 곧 한국불교의 갈 길”이라는 부분은 종단 차원의 생명결사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종단은 오래전부터 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생명살림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여러 환경 현안에 대해 종단 또는 불교 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생명과 환경 문제는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 달 새 300만 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가 살(殺)처분된 구제역 파동은 생명결사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육식 문화의 지나친 확산으로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육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육식 문화의 확산은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졌고, 구제역 발생이후 처리 과정에서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확인했다.

#### 생명공존의 가치를 실현

#### 생명살림 위한 청구제정

종단에서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구제역 종식 발원 및 희생 동물 천도제’를 개최해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축산 농민들을 위로하고,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했다. 생명결사의 구체적 실천행이다.

시대적 상황은 생명존중 사상의 확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사회적 요구는 불교의 생명살림과 방생(放生)의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 무분별한 살생과 환경파괴는 심각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존중 의식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죽어가는 물고기와 짐승을 풀어주는 방생 의식은 지금 보다 한 단계 발전시켜 ‘사회적 방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물고기를 강에 풀어주는 의식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물론 신도들이 생명살림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종단에서 생명결사를 주창하고 나선 것도 불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생명살림을 사회 속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종단에서는 생명결사와 관련 ‘생명살림을 위한 청규 제정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불교가 깊어져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인 생명결사는 불교정신의 사회적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눔 결사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5대 수행결사를 천명하던 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총무원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를 단체 관람했다. 아프리카 수단 오지 마을 ‘톤즈’에서 구호활동에 헌신하다가 암에 걸려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에 관한 이야기다. 계층과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감동휴먼 스토리로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다. ‘울지마 톤즈’의 단체관람은 불교계도 자비와 나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나눔 결사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108 배 △민생 지원활동(결식아동 지원) △나눔과 무소유 캠페인 등을 들

수 있다. 주무부서인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설날에 즈음해 총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교 본연의 사명인 보살행의 활성화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위상을 높인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이 개인과 사회의 치유와 정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비움으로 행복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움으로 행복찾기’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성대하게 선포식을 거행했다. 채움이 아닌 비움의 태도로 심신을 맑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목적이다. 몸의 비움, 마음의 비움, 재물의 비움이라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진행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이웃과 사회 위한 108 배

#### 민생 지원...무소유 캠페인

‘몸의 비움’은 매월 정기적으로 108 배 수행을 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마음의 비움’은 자기를 제외한 주변과 이웃의 대상 108 개를 정해 매월 그 대상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재물의 비움’은 감사와 기원의 마음이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매월 1만 800 원(1 배 100 원)을 기부하는 내용이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불교의 연기법을 담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화된 자비나눔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총무원, 사회복지재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등이 주관하는 자비나눔 사업은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희망의 등 달기’ 운동, 1 배 100 원 모금법회, ‘한 끼 나누기’ 운동 등으로 나뉜다. ‘희망의 등 달기’ 운동은 부처님오신날 등(燈) 공양비 중 1000 원을 이웃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음력 초하루인 오는 27일 오전 10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하는 ‘1 배 100 원 모금법회’는 말 그대로 불자들이 사찰에서 절을 할 때마다 100 원씩 성금을 내는 작은 보시행이다.

‘한 끼 나누기’ 운동은 사찰에서 열리는 각종 연수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끼 밥값을 줄여 종무소에 설치된 쌀독(좁도리)에 넣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모인 쌀은 불우이웃에게 전달된다.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지금 이 순간 나부터 소유에 대한 집착과 자아에 대한 맹신을 털어야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자성과 쇄신을 바탕으로 조계종이 국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평화 결사

평화결사는 불교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 담화문에서 밝힌 평화결사의 내용은

△종교간 평화 △남북한 평화 △세계평화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세 가지 원력은 한국사회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불교가 담당할 책무임에 틀림없다.

제 33대 집행부는 출범이후 줄곧 평화결사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해왔다. 총무원장 스님의 방북으로 남북 긴장 해소 노력을 했으며,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종단 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대북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강조했다. 남북 갈등해소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남북의 긴장 해소를 위한 ‘중단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로 풀이된다. 평화결사의 과제인 남북 평화를 위해 화쟁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에서 ‘통일 정책과 대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중단 주요과제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제시한 것은 남북평화에 대한 중단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강국의 이해관계가 모여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남북한 평화와 지구촌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종교간과 남북한 평화 모색

### 민주본 화쟁위서 대안 제시

우리 사회는 물론 지구촌이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종교간 갈등이다. 차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배타적인 태도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제적 분쟁까지 야기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간 갈등이다. 상생과 화합을 통한 종교간 평화를 이루는데 불교가 노력하겠다는 것이 평화결사의 원력 가운데 하나이다. 제 33 대 집행부는 그동안 종교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 월 26 일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타적 삶을 살았던 고(故)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다룬 영화 ‘울지마 톤즈’의 총무원 상영은 그 같은 행보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천주교 신부님께서 구현했다”면서 “이런 스님과 불자들이 나온다면 좋겠다고 판단해 함께 영화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교간 평화와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중단의 행보는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이 2013 년 한국에서 세계종교지도자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것도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의 단초를 제공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지구촌 분쟁의 주요 요인인 종교간 갈등을 종식하는데 세계종교지도자들이 나서자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종교차별 예방 및 대응활동도 중단차원에서 전개할 방침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의식 전환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면서 “그 길이 닿아야 할 곳은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시대정신을 부여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국불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대정신을 언급한 것은 한국사회와 지구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 사회와 시대가 봉착한 남북 갈등과 종교 갈등을 해소해 평화를 성취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향후 한국불교의 평화 성취 노력이 기대된다.

[불교신문 2693 호/ 2 월 2 일자에서 발췌]

## 실천불교 토론: ‘고기 몸’의 비극

이목구비가 얼굴에 물린 이유/ 먹고 먹히는 것이 생명세계의 비정한 현실/비정한 세계에서 강자 되려는 노력

수수께끼를 하나 내 보겠다. 우리의 얼굴에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이목구비가 얼굴에 물려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 바로 위에 코가 있고 코 위에 눈이 있다. 사람도 그렇지만 고양이나 개, 호랑이나 사슴과 같은 포유류는 물론이고 까마귀나 독수리, 참새나 비둘기와 같은 새들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잠자리나 사마귀, 개미나 모기와 같은 곤충도 그렇다. 이목구비가 우리 몸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얼굴에 물려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난센스 퀴즈가 아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이목구비가 얼굴 한 곳에 물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먹기 위해서’이다.

만일 우리가 아프리카의 오지에 혼자 버려졌다면, 몇 일간은 우선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배가 고파지고, 주린 배를 채울 먹이를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그 때 우리의 이목구비는 먹이를 찾는데 총동원된다. 먹이와 관련하여 혀는 ‘근접 화학탐지기’, 코는 ‘원격 화학탐지기’, 눈은 ‘원격 광학탐지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 먹이로 보이는 것이 원격 광학탐지기에 포착되면, 그것을 채취하여 원격 화학탐지기인 코로 그 성분을 분석하고, 입에 넣은 후 근접 화학탐지기인 혀로 그 유해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그것이 몸에 해롭지 않은 먹이임이 최종 확인되면 꿀꺽 삼킨다. 적어도 3 단계의 확인을 거친 먹이만이 목구멍을 통과한다. 이목구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입’이다.

이목구비 가운데 귀는 그 주된 기능이 입과 상반된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히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귀는 ‘매질 진동탐지기’이다. 우리가 사는 매질인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는 기관이다. 나보다 더 큰 몸을 가진 생명체가 움직일 때 주변의 공기가 진동한다. 큰 소리가 나는 것이다. 몸이 큰 생명체는 나를 잡아먹을 수 있기에 큰 소리가 나면 먹히지 않기 위해서 몸을 숨긴다. 물고기의 경우는 옆줄이 귀를 대신한다. 옆줄은 매질인 물의 진동을 느끼는 기관이다. 자기보다 몸이 큰 물고기가 움직일 때 물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런 진동을 옆줄로 포착한 작은 물고기는 먹히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피한다. 요컨대 눈과 코와 혀의 주된 기능은 ‘남을 잡아먹기 위한 것’이고, 귀의 주된 기능은 ‘남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것’이다. 남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이유는 내 몸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남이 나를 잡아먹는 이유는 내 몸이 고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공통점이다. 먹고 먹히는 비정한 생명의 세계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 정반왕과

함께 농경체에 참석했던 12 세 어린 싯다르타 태자의 눈에 비친 생명의 모습이였다. 농부의 쟁기질에 파헤쳐진 흙더미에서 벌레 한 마리가 꿈틀대는 것이 보였다. 그 때 갑자기 어디선가 작은 새가 날아와 그 벌레를 물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러자 다시 큰 새가 날아와 그 작은 새를 잡아챈 채 멀리 날아가 버렸다.

싯다르타 태자의 정신이 아득했다. 차마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 볼 수가 없었다. 태자는 인근에 있는 염부수라는 나무 그늘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곤 순식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다. 먹고 먹히는 것이 생명세계의 비정한 현실이었다. ‘고기 몸’의 비극!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생명에 대한 통찰이다. 우리의 몸 외부에 붙은 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입이고 다른 하나는 성기이다. 입을 통해 먹이를 섭취하여 몸을 유지하고, 성기를 이용하여 섹스를 해서 나와 유사한 2 세의 몸을 생산한다. 나의 이러한 몸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몸을 제공한 나의 부모를 포함하여 선대의 조상들이 모두 ‘먹는 일’과 ‘섹스’에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몸을 구성하는 유전인자 속에 이런 두 가지 욕망이 내재한다.

육신은 결국 노쇠하고 병들어 죽어서 썩는다

진화론으로 본 나의 몸이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Freud)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으로 식욕과 성욕을 들었는데 이는 이목구비의 중심으로 얼굴에 뚫린 입, 그리고 하체의 중앙에 있는 성기를 통해 충족된다. 동물적인 견지에서 볼 때 눈과 코와 귀, 그리고 손과 발의 4 지는 입과 성기를 보조하는 부속 기관들일 뿐이다. 2 차적인 도구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비정한 세계에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남보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남보다 좋은 배우자를 얻으려고 한다. 식욕과 성욕. 우리의 몸뚱이에서 솟는 동물적인 본능의 핵심이다. 그러나 먹이와 섹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짐승의 세계에서 보듯이 먹이와 섹스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자에게 고통을 주어야 한다. 최종 승자가 되어도 잠시일 뿐이고 곧이어 다른 강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고기 몸’의 본질인 먹이와 섹스는 쾌락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고기 몸은 항상 싱싱한 것이 아니라 결국 노쇠하고, 병들고, 죽어서 썩기 마련이다.

이런 통찰이 깊어질 때 자신의 ‘고기 몸’에 대한 ‘정나미’가 떨어진다. 아울러, 약육강식의 투쟁 속에서 생로병사 하는 다른 모든 ‘고기 몸’들에 대해 가련하고 애뜻한 마음이 샘솟는다. 불전에서는 염부수 아래에 앉아서 농경체의 비극을 떠올리던 12 세의 싯다르타 태자가 “모든 생명체가 받는 생로병사 등의 고통에 대해 면밀히 생각하면서 자비의 마음을 내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모든 욕망과 악에서 벗어났으며 욕계(欲界)의 번뇌가 다 소진되고 색계(色界) 초선(初禪)의 경지에 들 수 있었다(佛本行集經)”고 쓰고 있다.

불전에 의하면 생명의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無色界)의 삼계(三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욕계의 중생은 ‘몸과 정신과 동물적인 욕망’을 모두 갖고 있고, 색계의 중생은 ‘몸과 정신’만 있는 천신들이며, 무색계는 오직 ‘정신’의 삼매경만 있는 곳이다. 인간이나 짐승은 이 가운데 욕계의 중생에 속한다. 그리고 욕계의 번뇌는 ‘고기 몸’에서 비롯된 동물적인 욕망들이다. 고기 몸에서 생긴 번뇌들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은 욕계를 초월하여 색계의 경지로 향상한다. 색계의 경지 가운데 첫 단계를 초선이라고 부른다. 선 가운데 제 1 단계라는 의미이다. 선(禪)은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나(dhya-na), 빠알리어로는 자나(jha-na)의 음사어인 선나(禪那)를 줄인 말로 정관(靜觀)이라고 한역하기도 한다. “고요히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불교 수행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선을 닦을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두 가지 감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자신의 ‘고기 몸’에 대한 염리심(厭離心)이고 다른 하나는 ‘고기 몸’을 갖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 대한 애뜻한 연민심(憐愍心)이다. 간화선을 닦든 위빠사나를 하든 염리심과 연민심이 함께 해야 수행자의 마음은 진정으로 욕계를 벗어나 색계에 오를 수 있다. 12 세 싯다르타 태자가 그러했듯이...

불교신문에서 발췌: 김성철 /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

---

## “부처님 탄생지 룬비니 발굴조사 착수”

유네스코, 룬비니 보존 프로젝트 일환

부처님의 탄생지로 불교 4 대 성지 가운데 한 곳인 네팔 룬비니 지역에 대한 유적 조사가 시작됐다. 네팔 일간지 <히말라얀 타임즈>는 지난 12 일자 보도를 통해 “단장인 영국 더럼대학 로빈 커닝엄 부총장을 비롯해 국제 발굴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굴조사단이 석가모니 탄생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유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3 년간이다.

룬비니의 보존과 관리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발굴 조사는 지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부처님 탄생지의 고고학적 발자취를 탐사한다. 특히 발굴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룬비니의 고고학적 특징의 평가와 이해, 아소카 석주의 보존, 룬비니의 관리 체계 확립, 현지 전문가들의 수준 제고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

## 고려대장경 조성 1000 년 맞았다

복간한 초조본 1 차분 100 권 봉정식 등 기념사업 준비 한창

경남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은 잘 모른다. 올해가 고려가 초조대장경 조성을 시작한 지 꼭 1000 년이 되는 해라는 것도.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1011)년 조성을 시작해 현종 20년(1029년) 완성됐다.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고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염원에서 이뤄진 국가 프로젝트다. 초조대장경으로 시작한 고려의 대장경 사업은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고 교정한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 초조대장경이 몽골 침입기에 불타 없어진 뒤 다시 만든 '재조대장경'(이것이 바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다)의 완성(1251년)까지 무려 240년이 걸렸다.

대장경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을 가리킨다. 경장(부처님이 설하신 근본교리), 율장(불제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 논장(경과 율에 대한 스님과 학자들의 설명)의 삼장으로 돼 있다. 대장경은 단순히 불교 문헌 집성이 아니라 당대 지혜와 기술의 총화다. 중국은 새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대장경을 만들었다. 고려대장경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조성된 것으로, 아시아 전역의 관련 문헌을 한데 모으고 정리했다. 당대의 하이테크 뉴미디어인 목판인쇄술의 정수이자 종이의 질과 편집 수준 또한 단연 으뜸이다. 일본은 목판 대장경을 못 만들어서 17세기에 고려대장경 판을 복각했다.

초조대장경 1000년의 해를 맞아 기념 사업 준비가 한창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와 대구시가 앞장서고 있다. 1993년 문을 연 이래 고려대장경 전산화에 매달려온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00년 재조대장경, 2009년 초조대장경 DB화 작업을 마친 데 이어 2010년 초조대장경 복간에 착수, 1차분 100권을 3부씩 제작했다. 고려종이에 찍었다. 권은 두루마리를 세는 단위다. 고려대장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졌고, 권당 평균 25장의 목판을 이어 붙였다. 고려대장경의 총 권수는 5000~6000권. 이 가운데 일본과 국내에 남아있는 인본(印本) 2,686권을 2014년까지 5년에 걸쳐 전부 복간할 계획이다.

1차로 복간한 고려대장경 100권을 봉정하는 법회가 3월 19일 대구의 동화사에서 열린다. 동화사는 초조대장경이 보관됐던 부인사의 본사다. 대구시가 고려대장경 1000년 기념사업에 나선 연유가 여기에 있다. 동화사의 복간본 봉정식 외에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6월), 복간본 전시회(8~9월)가 대구에서 열린다. 서울에서도 5~10월 호림박물관, 10~11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기념 전시회를 한다. 초조대장경의 탄생 과정을 다룬 2부작 다큐멘터리는 5월경 TV로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일보 1월 21일자에서 발췌-

## BUDDHANARA TEMPLE (佛國寺) 신묘년 정초기도 및 입춘기도 동참자 명단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회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불자님 가정과 좋은 인연 맺게 해주신 부처님 전에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 불기 2555년 (2011년) 2월 3일 목요일 (음력 1월 1일)에 기도를 입재해서 불기 2555년 (2011년) 2월 6일 (음력 1월 4일) 까지 신묘년 정초기도 및 입춘기도를 봉행 합니다. 기도 회향은 2월 6일은 첫째주 일요일 초하루 기도 법회와 같이 봉행합니다. 신묘년 새해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 지면 관계상 주소는 생략하고 기도 올리신 분들 명단 만 올려드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0. Atlanta Buddhanara (애틀랜타 부다나라) 창건불사 원만 성취

1. 을해생 무량화 문봉순; 2. 갑진생 Mark Miller, 계묘생 여래성 Seonyoung Kim, 무인생 Aidan Miller, 경진생 Ryan Miller, 임신생 자비화 나홍렬; 3. 경자생 신형봉, 경자생 김선미, 기사생 신성호; 4. 박영찬, 하재숙, Soomin Park
5. 성락 권혁만, 진공 권순철; 6. 기축생 김현웅, 계사생 김숙향, 기사생 김정아; 7. 병오생 도광 이찬혁, 기유생 이은정, 정축생 이지민; 8. 임진생 조남국, 무술생 현심행 김설아, 갑자생 조민우; 9. 갑오생 심용택, 정유생 능도성 한경련, 병인생 심상준, 무진생 심상완; 10. 기사생 강미자, 신축생 강용택, 기해생 관음성 강상숙, 경오생 강정철, 무인생 강현대; 11. 박정근, 이호임, 병진생 박지훈, 경신생 김우진, 신유생 박성원, 을축생 James Gast; 12. 무진생 최춘자, 갑오생 허정석 (근일), 기해생 김원미, 갑자생 허윤정, 기사생 허정민; 13. Debra Tak; 14. 무인생 법화행 신경숙, 무신생 정행 원상희; 15. 을유생 법성월 신동희, 임진생 법성화 신동립; 16. 건명 임재현, 곤명 강삼화, 임정민, 임우종; 17. 최봉주, 최진숙, 최소영, 최진주, 최수하; 18. 계사생 서희석, 정유생 설용자, 갑자생 서은애, 무인생 서중선; 19. 김추윤, 이양선, Anne Kim, Jenney Kim; 20. 계축생 진주 조은철, 갑인생 김정아, 무자생 조희영; 21. 무신생 선법 조승호, 임자생 차은주; 22. Steve Arnett; 23. Gregory Kilper Family; 24. 정유생 박래경, 무술생 김효례, 기사생 박으뜸, 신미생 박꽃별, 무인생 박셋별; 25. 을사생 송보영, 을사생 강효정, 임신생 송채원, 계유생 송지환, 기사생 조순옥, 정축생 권효영; 26. 정미생 황현식, 정미생 박계영, 을해생 황준우, 무인생 황수연, 임오생 황준길; 27. 계사생 김태희, 무진생 신동윤, 갑자생 오점순; 28. 을유생 신동철, 계사생 임정숙, 무오생 신선양, 경신생 신동호; 29. 무신생 김태성, 계축생 이금주, 신사생 김준협, 정해생 김준성, 경진생 김영희, 갑신생 이희영; 30. 병진생 덕암 김인규, 신사생 오옥선, 임인생 자광 김용오; 31. 병진생 이창현, 계묘생 이연주, 갑진생 박영숙, 갑술생 이진희, 정축생 이재희, 경진생 이승희; 32. 병오생 홍대선, 병술생 정해주, 무인생 홍준수; 33. 병신생 정순범, 경자생 정정순, 경오생 정영환, 임신생 박난례; 34. 정미생 백유상, 신해생 류정아, 병자생 백옥태, 경진생 백정이; 35. 계묘생 손영찬, 경술생 김효진, 정축생 손명옥, 기묘생 손해림, 신사생 손명호, 정축생 김야모; 36. 임자생 유행석, 을묘생 이경주, 임오생 유동원, 병술생 유하연; 37. 임신생 김일선, 을묘생 오종민; 38. 경자생 민정기, 신축생 송혜숙, 계유생 민경문, 무자생 김기준; 39. 경자생 안대원, 무술생 김상화, 신미생 안형철, 계유생 안형태; 40. 기해생 안애경; 41. 기해생 김인주; 42. 임인생 서희선, 신축생 최영숙, 무진생 서현우, 경술생 서현준; 43. 무인생 김혁준; 44. 임인생 김중수, 임인생 최송순, 임신생 김주호, 갑술생 김주성; 45. 갑오생 배제현, 무술생 최문선, 병인생 배진, 무진생 배수진, 임신생 배민철; 46. 임인생 송완근, 임인생 임영애, 신미생 송미경, 계유생 송주열, 경신생 임대인; 47. 보배심 김태순, 갑인생 이은숙; 48. 병자생 한정언, 경진생 장복도; 49. 기해생 박태연, 정묘생 박일섭, 신미생 박여름; 50. 박기순

##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2010 년 11 월부터 애틀랜타 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정기 법회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친숙한 경전중 하나인 “천수경”을 강의합니다. 꼭 법회에 참석하시어 “천수경”을 다시한번 공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 지금은 동안거 결재중입니다. 동안거가 해제하는날인 2 월 17 까지 조금이나마 수행자의 마음자세로 향시 삼업(마음, 몸, 뜻)을 챙기고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수행의 근간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 2011 년 토끼해를 맞이 하여 불자님 가정에 가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다나라에서는 2011 년 2 월 3 일 9(음력 1 월 1 일) 기도를 입재해서 2011 년 2 월 6 일 첫째주 일요일까지 정초기도를 봉행했습니다. 모두 50 가족이 “2011 년 신묘년 정초기도 및 입춘기도를 올렸습니다.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합니다. 소원 성취 하십시오.
- 애틀랜타 부다나라 창건불사가 신도님들의 신심으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도량 확보에 약 3 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을 곧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준 불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1 월 20 일날 반가운 스님께서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2 월 말까지 도수스님이 사찰에 머무르실

예정이니 불자님들께서는 스님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 그동안 부다나라 법회에서 신심을 다해 정진하셨던 진수 조은철 법우님 가족이 2월 17일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진수 조은철 법우님은 한양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2011년 1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15번 밀양후인 박능안 영가(행효자 박재현 복위) 233번 경주후인 최봉규 영가(행효자 최석현 복위), 234번 계묘생 장경숙, 235번 기사생 최석현, 248번 갑오생 강대성, 249번 정유생 한경열, 250번 경신생 강필승, 251번 갑자생 이미나.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한 평 불사 : James Joseph Miller (행효자부 여래성 김선영)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